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019-10000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의 변화 추이와 특징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2020년 제외). 특히, 유아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기로 올라 갈수록 사교육비 총액은 더 증가하였다.
- 사교육 참여율은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점차 증가하여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령 및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 유아기에는 영어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양육 유아,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에 참여하는 유아의 사교육비가 기관재원 유아에 비해 6.4배 더 많았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예체능 과목에 비해 일반교과의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 연령 및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자녀 돌봄 및 예체능 재능 계발 목적의 사교육 비중이 감소하고, 학교 수업 보충 및 선행학습, 진학 준비 목적의 사교육 비중이 증가하였다.
-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 수준이 높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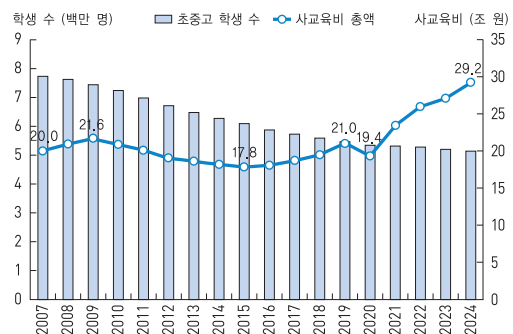
사교육이 등장한 배경에는 해방 이후 ‘교육을 사회적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있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

는 사교육 시장이 더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대 정부는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정책, 공교육 내실화 혹은 정상화 정책, 입시제도 개선 정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과열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중·고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2020년 제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iv-1). 무엇보다도 2024년에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2조

[그림 iv-1] 초·중·고 학생 수 및 사교육비 총액, 2007-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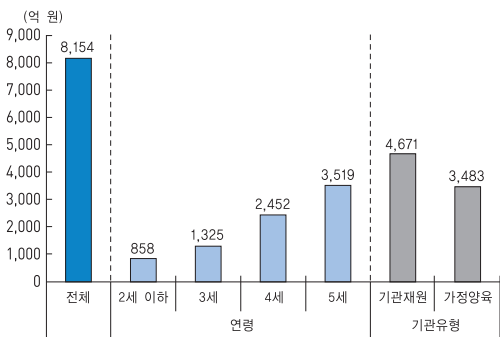
원으로 최고 수준을 경신하였다. 2024년에 조사된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서 3개월(7~9월)간 6세 미만 유아의 사교육비 총액도 8,1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한국 사회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아기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시기로 구분하여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교육 과열 현상이 가정-학교-사회에 미친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아기(6세 미만)의 사교육 현황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03.13.)에 따르면, 6세 미만 유아

[그림 iv-2] 유아기의 사교육비 총액, 2024(7~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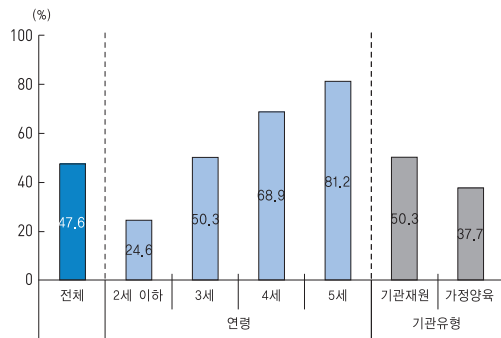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2025.03.13.

의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7~9월 3개월간 8,154억 원이었다.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총액이 증가하였으며(2세 이하 858억 원 → 3세 1,325억 원 → 4세 2,452억 원 → 5세 3,519억 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관재원 유아(136.2만 명)의 3개월간 사교육비 총액은 4,671억 원, 가정양육 유아(36만 명)는 3,483억 원이었다.

6세 미만 유아의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47.6%였다.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며(2세 이하 24.6% → 3세 50.3% → 4세 68.9% → 5세 81.2%), 기관재원 유아의 50.3%, 가정양육 유아의 37.7%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유아기의 사교육 참여율, 2024(7~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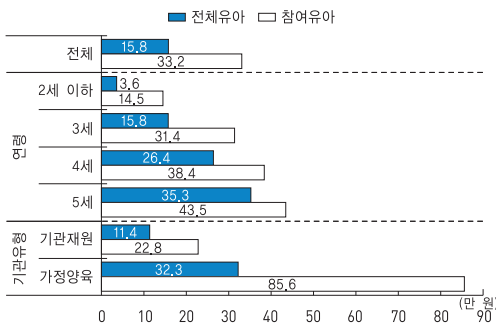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2025.03.13.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유아 기준으로 15.8만 원,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기준으로 33.2만 원이었다.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는 증가하였으며(사교육 참여 유아 기준

으로 2세 이하 14.5만 원 → 5세 43.5만 원),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기관재원 유아가 22.8만 원, 가정양육 유아가 85.6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정양육 유아 중 3시간 이상 반일제 학원에 참여하는 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45.4만 원이었으며, 반일제 학원 유형 중 영어학원에 참여하는 유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유아기의 월평균 사교육비, 2024(7~9월)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2025.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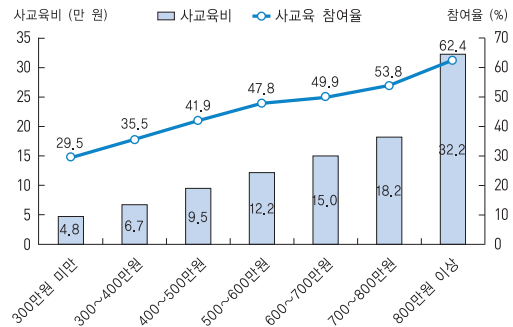
과목별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일반과목은 월평균 34.0만 원, 예체능 및 기타(취미·교양) 과목은 월평균 17.2만 원이었으며, 일반과목 중 영어 사교육비가 41.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아기의 사교육 수강 목적(복수 응답)은 일반 과목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준비(67.6%), 재능 계발 및 진로 탐색(53.8%), 불안심리(41.0%), 돌봄(9.8%) 등의 순이었으며, 예체능 및 기타(취

미·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재능 계발 및 진로 탐색(60.3%), 문화예술적 감수성 함양(50.1%), 사회성 발달(23.8%), 돌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예체능 재능 계발 및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둔 학부모의 불안 심리로 인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을 보여준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29.5%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4.8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 및 지출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800만 원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62.4%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32.2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와 800만 원 이상인 가구 간에는 32.9%p의 사교육 참여율 격차와 27.4만 원의 사교육비 격차가 나타났다.

[그림 iv-5] 가구소득별 유아기 사교육, 2024(7~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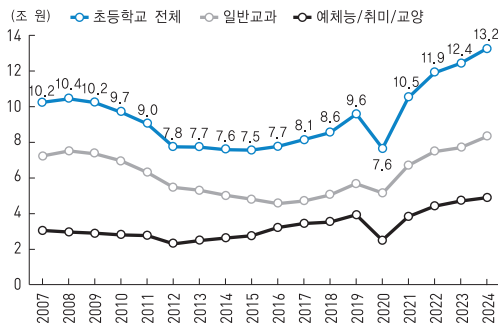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2025.03.13.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현황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사교육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2021년부터 급증하여 2024년 현재 13.2조 원에 달하였다.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의 사교육비 총액은 2012년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2020년 제외).

[그림 iv-6]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 200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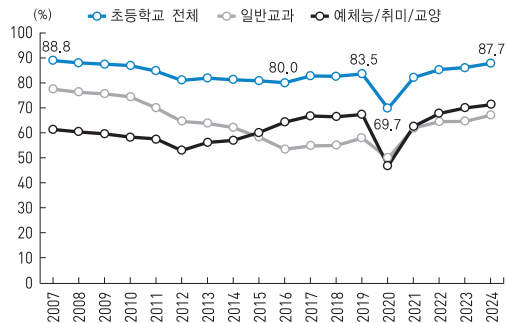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88.8%)부터 2016년(80.0%)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2024년 87.7%). 일반교과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 사교육 참여율이 매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은 2012년 이후 사교육 참여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5년 이후

로는 일반교과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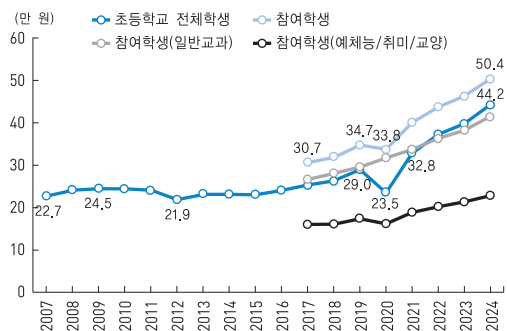
[그림 iv-7]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율, 2007-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볼 때, 2012년 21.9만 원에서 2024년 44.2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는 2017년 30.7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50.4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제외). 사교육

[그림 iv-8] 초등학교 시기의 월평균 사교육비, 2007-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일반교과의 사교육비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포함하여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의 사교육비도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학교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일반교과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반면,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교육 과목 유형이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에서 일반교과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iv-1] 초등학교 시기의 학년별 사교육, 2024

학년	사교육 참여율 (%)		참여 학생 사교육비 (만 원)	
	일반교과	예체능/취미/교양	일반교과	예체능/취미/교양
1학년	56.7	79.3	32.9	23.9
2학년	63.4	82.3	35.2	25.2
3학년	68.2	78.7	40.3	24.2
4학년	71.9	72.1	41.6	22.5
5학년	73.0	65.5	47.1	20.3
6학년	67.6	53.4	47.2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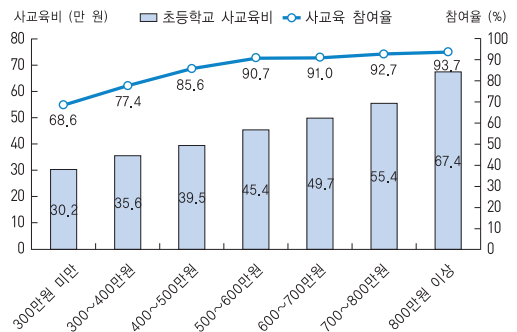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2024.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수강 목적(복수 응답)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기준으로 볼 때, 일반과목의 경우 학교 수업 보충(84.0%), 선행학습(40.3%), 보육(21.3%) 등의 순이었으며,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취미, 교양, 재능 계발(91.6%), 보육(2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에 교과 학

습뿐만 아니라 방과 후 자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을 보여준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 및 지출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3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에는 68.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30.2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반면, 800만 원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93.7%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67.4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가구소득별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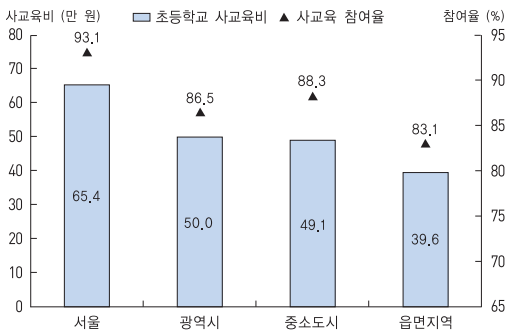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지역 규모에 따른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93.1%), 중소도시(88.3%), 광역시(86.5%), 읍면 지역(83.1%)의 순이었으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65.4만 원), 광역시(50.0만 원), 중소도시(49.1만 원), 읍면 지역(39.6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과 광역시·중소도시 간 사교육 격차, 그리고 도시와 읍면 지역 간 사교육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간 교육환경과 사교육 접근성의 차이가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0] 지역 규모별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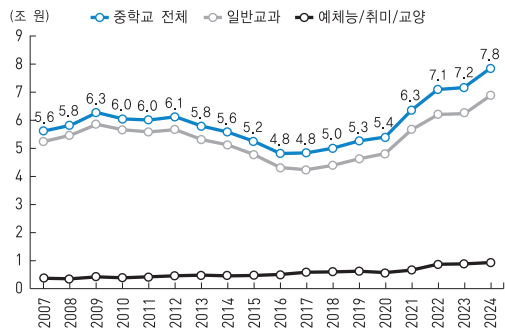
중·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현황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을 살펴보면, 2009년(6.3조 원)부터 2016년(4.8조 원)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 7.8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2007년(4.2조 원)부터 2015년(5.1조 원)까지 사교육비 증가세가 정체되었으나,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8.1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예체능·취미·교양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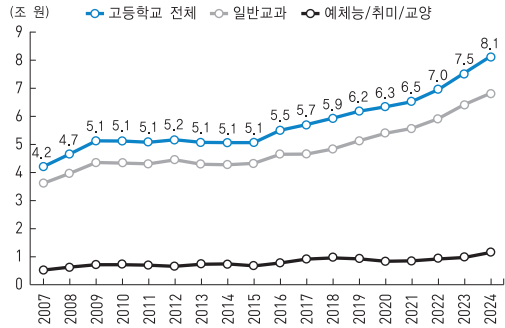
보다는 일반교과 사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 사교육비 총액의 변화 추이는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의 변화 패턴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iv-11] 중·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 2007-2024

1) 중학교



2)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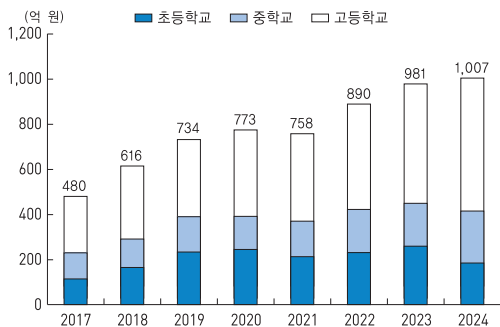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시·정시 전형 등 대입 제도가 다양화되었고, 2007년부터는 정시전형(48.5%)보다 수시전형(51.5%)의 모집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점차 수시전형 중심의 입시 구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진로 설계, 진로·진학 상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입시 컨설팅 사교육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사교육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비의 초·중·고 전체 총액은 2017년 480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7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입시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비 총액이 다른 학교 급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다.

[그림 iv-12]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비 총액, 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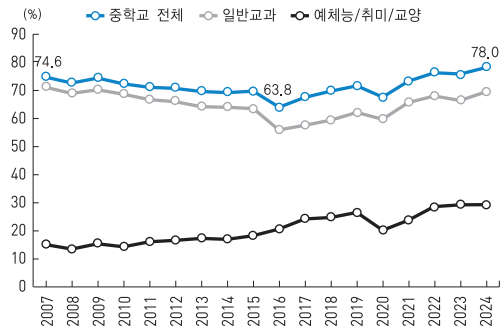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조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4.6%에서 2016년 63.8%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78.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55.0%에서 2013년 49.2%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67.3%에 이르렀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에 비해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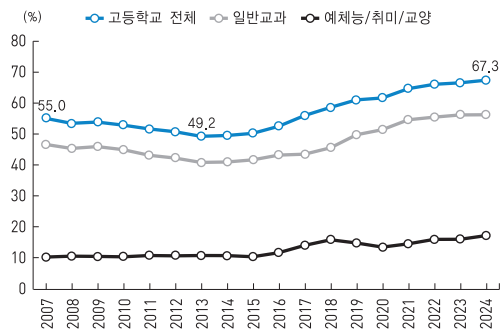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사교육 참여율과 유사한 추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예체능·취미·교양 과목 관련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율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중·고등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 2007-2024

1) 중학교



2) 고등학교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조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23.4만 원에서 2016년 27.5만 원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49.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중학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43.2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62.8만 원에 달하였다.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체 학생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19.7만 원에서 2015년 23.6만 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52.0만 원에 이르렀다. 이를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51.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77.2만 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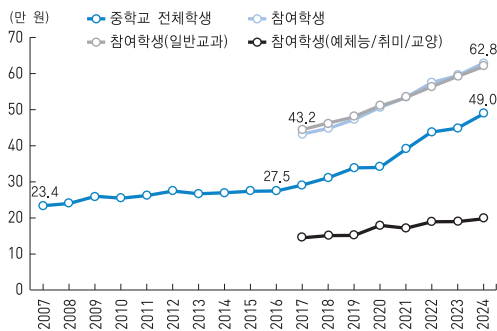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중·고등학교 시기 모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반교과에 비해서는 완만한 수준이었다.

중·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수강 목적(복수 응답)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기준으로 볼 때, 일반교과의 경우 학교 수업 보충(중: 87.2%, 고: 78.7%), 선행학습(중: 42.5%, 고: 28.4%), 진학 준비(중: 25.9%, 고: 50.9%) 등의 순이었으며,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취미, 교양, 재능 계발(중: 87.8%, 고: 50.2%), 진학 준비(중: 19.1%, 고: 6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학교 시기에는 학교 수업 보충 및 선행학습을 위해,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 수업 보충과 함께 진학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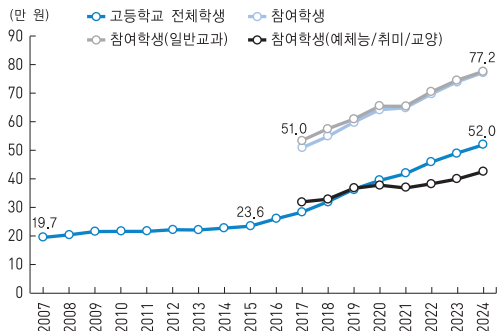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중·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유아기나 초등학교 시기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 및 지출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중학교는 53.8%의 참여율과 36.6만 원의 사교육비를, 고등학교는 45.2%의 참여율과 46.5만 원의 사교육비를 나타낸 반면, 800만 원 이상 가구의 경우 중학교는 86.6%의 참여율과 79.0만 원의 사교육비를,

[그림 iv-14] 중·고등학교 시기 월평균 사교육비, 2007-2024

1) 중학교



2)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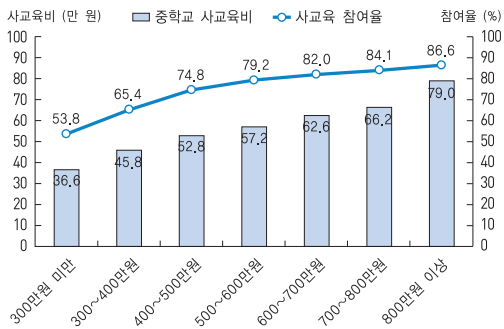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고등학교는 77.5%의 참여율과 96.6만 원의 사교육비를 나타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수도 자녀가 입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와 800만 원 이상인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는 유아기(27.4만 원)에서 초등학교(37.2만 원), 중학교(42.4만 원), 고등학교(50.0만 원)로 올라갈수록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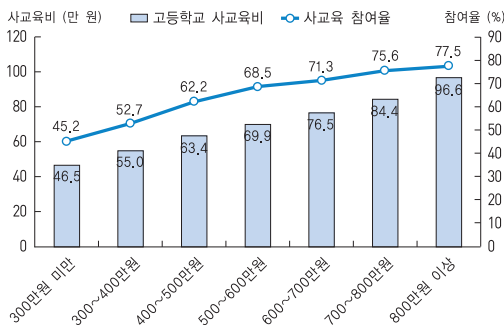
지역 규모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시기 모두 서울 지역의 참여율 및 지출 액수가 가장 높고,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중간 수준이며, 읍면 지역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지역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는 각각 85.1%, 81.2만 원이며, 읍면 지역 중학생은 각각 69.8%, 48.7만 원이었으며,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는 각각 74.7%, 102.9만 원이며, 읍면 지역 고등학생은 각각 56.1%, 58.7만 원으로

[그림 iv-15] 가구소득별 중·고등학교 시기 사교육, 2024

1)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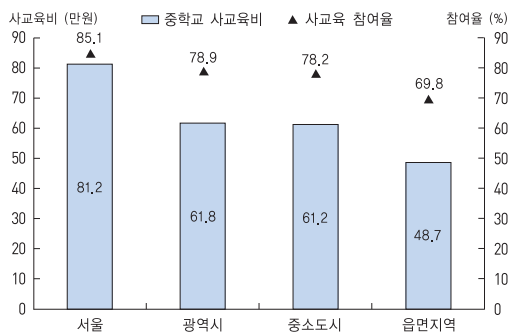
2)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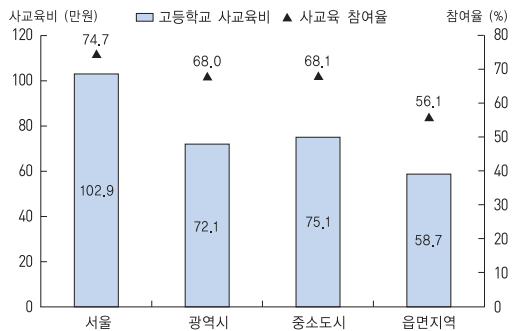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그림 iv-16] 지역 규모별 중·고등학교 시기 사교육, 2024

1) 중학교



2) 고등학교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나타나, 지역 규모에 따른 뚜렷한 사교육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맺음말

사교육 과열 현상은 가계 부담, 학생 발달 저해, 학교 수업 참여도 저하, 사회 불평등, 저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사교육 과열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 경쟁이 지적되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있다. 1970~1990년대를 거치며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을 경험한 학부모들은 교육이 사회적 성공과 직결된다는 믿음으로 자녀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또한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이다. 공교육의 역할(전인교육, 보편교육)과 학생·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기대(입시 준비교육,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 사이의 간극은 공교육 불신을 증대시켜 왔다. 학교 수업 보충과 선행학습이 사교육 수강의 주목적이라는 점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시 정책

의 잦은 변화와 복잡성도 입시 컨설팅 사교육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유아 및 초등학교 시기에는 방과 후에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구소득 및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과 사교육 접근성의 차이가 학업성취 격차로 이어지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읍면 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해야 하며, 돌봄 목적의 불필요한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 과열의 직접적인 원인인 입시제도를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학교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사회적 성공을 대학 서열과 학벌로 인식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과 진로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궁지영. 2024. “사교육 과열 현상, 해법은 없는가?”. KEDI Brief, 제16호. 한국교육개발원.
- 남궁지영. 2025.10. “사교육 과열, 어떻게 풀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통권388호. 한국교육개발원.